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 희망의 목소리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가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목소리”라는 소식지로 매월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29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의 진솔한 이야기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식지를 통해 들어보세요.

전 국민이 129를 기억하는 그 날까지!!

보건복지콜센터 직원일동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 희망의 목소리

## Contents

### 1. 상담수기

|                    |              |   |
|--------------------|--------------|---|
| 깜깜한 어둠속에서도 반짝이는 빛  | 이영심(위기대응상담팀) | 1 |
| 고객님의 밝은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 최경하(위기대응상담팀) | 3 |

### 2. 에세이

|              |                   |   |
|--------------|-------------------|---|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김국희(사회복지정책상담팀)    | 5 |
|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 이정연(보건의료정책상담팀)    | 7 |
| 희망을 전하는 상담원  | 김효진(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 9 |

### 3. 시

|      |                |    |
|------|----------------|----|
| 예방접종 | 이채빈(보건의료정책상담팀) | 11 |
|------|----------------|----|

### 4. 보건복지정보

|                                    |    |
|------------------------------------|----|
| 1. 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수당 2월에 사전 신청하세요! | 12 |
| 2. 취학 예정 어린이, 입학 전까지 예방접종 마치세요     | 15 |
| 3. 이 · 미용실 이용 전에 서비스 내용 · 가격 확인하세요 | 17 |

### 5. 129소식

|                |    |
|----------------|----|
| 이달의 행사 및 활동    | 18 |
| - 14시 상담원 교육   | 19 |
| 상담원 교육 / 우수상담원 |    |



# 깜깜한 어둠 속에도 반짝이는 빛



이 영 심  
| 위기대응상담팀 |

우리는 일상에서 가끔 몇 분 정도의 정전에도 요란 범석을 띤다. 그런데 만약, 매일 불이 꺼진 채로 어둠 속에서 씻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등의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 달 전, 내게 걸려온 전화 한 통.

고객은 쌓인 게 많았던지 한 참 동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이야기했다.

“내가 일하는 게 꾸준하지 않다보니까 늘 쪼들려요. 그래서 이는 사람이 거주지를 마련해줘서 그나마 지내고 있었죠. 제가 간간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돕고 있었는데 몇 달 전부터는 일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늘 나가야하는 생활비는 정해져 있다 보니 결국 전기료가 미납되어 단전이 된다는 안내장이 왔더라고요. 밀린 고지서는 받았지만 남의 집에서 지내는 것도 염치없는데 또 다시 남들에게 부탁하기도 뭐하고... 남편에게 따져봤자 소용없더라고요. 단전이 된다고 했지만 바로 단전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두 달 전에 전기가 진짜 차단됐어야 했는데 착오로 인해 차단을 못했다면서 직원 두 명이 와서는 전기를 끊고 가더군요. 그래서 고지서를 보니까 누진세라고 하면서 51만원이 미납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좇볼 켜고 지내왔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예요. 그렇지만 정말... 정말... 남의 도움 없이 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너무 어렵네요”



처음에는 흥분된 상태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말을 잘 잊지 못하고 울먹였다. 고객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다독여 드렸다. 울먹이는 고객의 마음이 진정이 될 무렵, 혼자서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니 속이 시원해졌다는 말에 나로서도 한시름 덜게 되었다.

고객의 상황을 들은 나는 긴급복지지원 중 단전된 지 1개월이 경과되는 등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과 미납된 금액 중 일부 납부가 되어야 함을 안내했다. 고객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냐며 연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며 상담이 종료 되었다.

전기 없이 두 달 동안, 촛불로만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하려고하니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던 고객의 의지가 대단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긴급복지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며칠 뒤 고객에게 전기요금 지원을 받게 되어 고맙다는 메모를 전달받았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고객의 가정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는 뿌듯함에 미소가 지어진다.



# 고객님의 밝은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최 경 하  
| 위기대응상담팀 |

‘손이 시려워 뽕! 발이 시려워 뽕! 눈이 많이 오고 유난히 추운 겨울 날, 절실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옆집에 사는 이웃의 노랫소리가 귓가에 들린다는 것이다. 이웃은 익숙한 곡을 개사 해서 쉬지 않고 부른는데, 자신을 헐박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의 가사라고 했다. 고객은 너무 피로워서 집과 떨어져 멀리 가면 안 들릴까 싶어 타지로 일을 하러 나갔으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노랫소리가 들려 무섭다며 울먹였다. 이웃을 신고하면 며칠 잠잠하다가 다시 노랫소리가 들리는 일이 몇 달째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웃이 자신의 생각까지도 읽어버려 일주일 전부터는 일을 그만두고,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집에만 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짠했다.

유명한 영화, 론 하워드 감독의 2001년 작 「뷰티풀 마인드(A Beautiful Mind)」의 주인공 ‘존 내쉬’ 에게도 본인만 볼 수 있는 친구 찰스와 조카 마시가 있었다. 존 내쉬는 어린 아들을 목욕시키다가 아들을 친구 찰스에게 잠시 맡기지만, 실은 물이 차오르는 욕조 바닥에 아들을 홀로 누워 익사시킬 뻔 한다. 아들을 데리고 떠나려는 아내를 말릴 때 조카 마시가 등장해서 존 내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그때 존 내쉬는 조카 마시가 10년째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공포에 휩싸인다.

‘맙소사, 왜 넌 10년째 자라지 않는 거지? 넌 누구이고, 난 누구인가?!’

노랫소리 때문에 이웃을 신고 해야만 했던 고객, 평생을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사실인지 망상인지 일일이 확인해야만 했던 존 내쉬의 증상은 평생유병률이 1%인 것만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 가족의 일이고, 내 친구의 일이다.

다행히 약물이 계속 발전되어 과학적인 치료가 가능해졌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이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도록 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 정신보건센터로 연계를 했다. 고객은 정신보건센터의 도움을 받아 병원 치료도 받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받게 될 것이다.

‘고객님~ 손도 발도 시려운 추운 겨울이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서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관리만 잘 한다면 충분히 일상생활 가능하니까요, 이제는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고객님의 밝은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김국희  
| 사회복지정책상담팀 |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이 가사는 가수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의 한 소절이다. 90년대를 풍미하고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이 노래를 그저 흥얼거릴 때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때가 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을 볼 때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29번 상담전화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129번을 눌러 지원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정기준을 근소한 차이로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제도권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해당되어 그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상담원의 사과에 상담을 해준 것만으로 감사했다며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더욱 죄송스러운 마음과 안타까움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리고 가슴 한켠에 ‘사람이 참 아름답다. 본받고 싶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또한 복지제도가 새롭게 제정되거나 확대개정이 되었을 때도 나의 마음은 따뜻하고 행복해진다.

최근에 장애1급만이 지원받을 수 있었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2급까지 확대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님 서한문이 발송되었다. 대상자확대 소식이 생명수와 같으며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다.

상담원을 향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수십 차례, 건강하고 행복하라며 덕담을 아낌없이 해주신다. 이렇게 마음씨가 아름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복지제도 확대소식은 지원대상자만의 기쁨이 아닌 나의 기쁨도 된다.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니 한없이 기쁘고 서로에게 미소 띤 얼굴로 감사함을 전할 수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을 참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다. 아름다운 분들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아름다운 성품을 배울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가난과 어려운 환경은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 강박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분들에게 포함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어떤 것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사람의 성품 외에 또 있을까? 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아도 사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렇듯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복지정책들의 필요성을 새삼 절감한다. 상담을 하면서는 복지정책이 단순한 정책이 아닌 삶과 행복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매 시간 느끼게 된다.





#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정 연  
| 보건의료정책상담팀 |

보건복지콜센터 화장실에는 매 달 좋은 글귀와 혈액형별 성격을 알아보는 재미있는 만화 등을 볼 수 있도록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용혜원 시인의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사람과의 관계를 고민하던 저에게 매우 좋은 시라는 생각이 들어 핸드폰에 저장하여 매일매일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눈길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과  
잠시만이라도 같이 있고 싶습니다

살아감이 괴로울 때는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살아감이 지루할 때면  
보고픈 사람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 용혜원 시인의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中 -

마음과 눈길 그리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닫힌 마음의 문도 열어야 하고, 다른 생각을 서로가 맞춰가는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도 해보고 싸워도 보지만 무척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등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만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저에게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 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저 또한 가식적인 인간관계를 만든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 중 나와 더 통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수화기에 가려져 얼굴은 모르지만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는 많은 고객들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화주시는 분,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신 분, 불만이 있어서 건의를 하시는 분 모두다 그럴것입니다.

‘살아감이 피로울 때는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라는 구절처럼 삶이 힘들거나 도움을 받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주세요. ‘누구든’ 이 아니라 고객과 마음이 통하는, 눈길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더라도 진심이 통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요?

가족, 친구 그리고 직장 그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부터 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 것 입니다. 특히 얼굴은 모르지만 나를 믿고 어려운 상황을 말씀해주시는 그 분들을 위하여 보건복지콜센터 ☎129의 모든 상담원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 희망을 전하는 상담원



김효진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 4년 정도 정신없이 일을 하며 반복되는 업무에 회의감을 느끼던 나는 직장인 사춘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작년 7월 별다른 계획도 없이 덜컥 퇴사를 결심하였다. 이직할 곳도 정하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하니 주변에서 만류도 많았지만 지금! 당장! 마음먹은 때가 아니면, 변화 없는 일상의 반복이겠다 싶어 행동에 옮기게 된 것이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나의 진로에 대해서도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보고 싶었던 때였다.

퇴사 후 내가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아보던 중,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신입 상담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예전에 상담업무 경험도 있고 나의 전공 분야이기도 한 사회복지를 상담하는 콜센터라고 하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입사지원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 면접까지 보게 되었지만 합격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았다. 웬지 떨어졌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하던중 다행히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사실 입사원서를 접수하기 전에는 129 보건복지콜센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던 터라 합격은 했지만 과연 내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잘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다. 역시나 첫 날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서 일주일간의 공통교육과 상담팀별로 한 달여간의 심화교육과 시험이 반복되다 보니 무척 힘들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팀에 근무하게 된 나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출산·보육·노인정책 등 다양한 사업들이 낯설기만 했다. 답답한 마음에 교육 후에도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는 등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받은 내용들은 짝이 없는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을 헤매곤 했다.



2013년 1월! 드디어 실전업무가 시작되었다. 고객의 전화를 받기 시작하면서 불안감과 업무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갔다. 물론 신입이기에 아직 잘하기 보다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담담하게 해보려 했지만 그것이 마음먹은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상담전화를 받기보다는 선배님들의 상담을 동석하며 상담내용을 듣고, 전화는 최대한 늦게 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 하지만 1월에 만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이 결정되면서 문의전화가 많다보니 신입 상담원들도 실제 상담전화를 받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 혹시나 내가 잘못 안내하는 부분이 없는지 불안한 마음이 컸다. 처음에는 고객의 질문에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가 되곤 했지만 하루하루 상담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헤매던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제 짝을 찾아 맞춰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단한 문의내용이라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나의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고 고객의 말 한마디에 뿌듯함마저 느껴진다. 그렇기에 불안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음 상담에 대한 기대도 해본다.

아직은 서툴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보건복지콜센터의 상담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고객의 입장에서 희망을 전하는 상담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 예 방 접 종



이 채 빈  
| 보건의료정책상담팀 |

**예**방접종 지원 사업 항목이 확대 되었습니다.

**방**송,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접**종비가 비싸 접종을 망설였던 영유아 뇌수막염(Hib)백신비를 3월1일부터 지원하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5월부터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종**전보다 확대된 지원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 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수당 2월에 사전 신청하세요

- 만0~5세 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수당 신청 · 접수 시작 -

♣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4일부터 만0~5세 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수당 순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수당 신청 · 접수를 시작한다.

○ 2013년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3~5세 만 해당)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 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되며, 지원확대에 따라, 신규로 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2월 4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 ♣ 신청 방법

#### 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만0~5세 보육료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제출서류(주민센터에 비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만3~4세 소득상위30% 등)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금번 기간에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

\* 단,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②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 만3~5세 유아학비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2012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되며,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한 대상자 지원금액 확인

③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만0~5세 양육수당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 제출서류(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통장사본
- \*\*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제출 필요
-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해 준다.

♣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부모 등 보호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

- ① 서비스 자격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②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되어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이다.
  - 단, 보육료는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 ③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는 점이다.
  - 단,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본다.

♣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이 순계층으로 확대되었지만, 금년 3월부터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보도자료 참고

보건복지부

## 2013년 보육료, 양육수당 순 계층 지원 (2013. 3월 시행)

아이사랑카드  
**보육료**  
시설 이용시

| 만0~2세   | 만3~4세  | 만5세                                   |
|---|--|---------------------------------------|
| <b>2012년</b><br>순 계층 지원<br>만0세 : 39.4만원<br>만1세 : 34.7만원<br>만2세 : 28.6만원 | <b>2012년</b><br>소득하위 70%<br>만3세 : 19.7만원<br>만4세 : 17.7만원 | <b>2012년</b><br>순 계층 지원<br>만5세 : 20만원 |
| <b>2013년</b><br>순 계층 지원<br>만0세 : 39.4만원<br>만1세 : 34.7만원<br>만2세 : 28.6만원 | <b>2013년</b><br>순 계층 지원<br>만3세 : 22만원<br>만4세 : 22만원      | <b>2013년</b><br>순 계층 지원<br>만5세 : 22만원 |

\* 만0~2세의 경우, 시설로 직접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별도로 어린이집에 지속 지원 (만0세 36.1만원, 만1세 17.4만원, 만2세 11.5만원)

\* 2013년 기준 연령별 출생일

- 만 0세 : 2012. 1. 1 이후 출생
- 만 1세 : 2011. 1. 1 ~ 2011.12.31 출생
- 만 2세 : 2010. 1. 1 ~ 2010.12.31 출생
- 만 3세 : 2009. 1. 1 ~ 2009.12.31 출생
- 만 4세 : 2008. 1. 1 ~ 2008.12.31 출생
- 만 5세 : 2007. 1. 1 ~ 2007.12.31 출생

**양육수당**  
가정 양육시

| 만0~2세   | 만3~4세   | 만5세                                   |
|---|---|---------------------------------------|
| <b>2012년</b><br>차상위 계층 이하<br>12개월 미만 : 20만원<br>24개월 미만 : 15만원<br>36개월 미만 : 10만원 | <b>2012년</b><br>지원 없음                               | <b>2012년</b><br>지원 없음                 |
| <b>2013년</b><br>순 계층 지원<br>12개월 미만 : 20만원<br>24개월 미만 : 15만원<br>36개월 미만 : 10만원   | <b>2013년</b><br>순 계층 지원<br>만3세 : 10만원<br>만4세 : 10만원 | <b>2013년</b><br>순 계층 지원<br>만5세 : 10만원 |



## 취학 예정 어린이, 입학 전까지 예방접종 마치세요

- 취학아동 4종 예방접종 확인사업, 온라인으로 절차 간소화 -

- 단체생활 시작 시기 감염병에 가장 취약, 표준일정에 맞춰 접종완료 해야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처음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4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취학 시 확인할 계획이다.

○ 만 6~7세 어린이가 취학하는 시기는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하는 때로,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대규모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 있어 감염병 발병에 가장 취약한 시기다.

○ 이에 정부는, 만 4~6세 때 받아야 하는 DTaP(5차), 폴리오(4차), MMR(2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4종 예방접종을 완료했는지 취학 시(3월2일부터 3개월간) 확인할 계획이다.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교사가 학생의 예방접종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보호자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로 '12년부터 시행).

○ 2013년 3월 취학을 앞둔 아동 보호자는,

- ① 입학 전에 자녀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여부를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http://nip.cdc.go.kr>)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해보고,
- ② 빠진 접종이 있을 경우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며,
- ③ 전산등록이 누락된 내역에 대해서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접종내역 4종이 온라인으로 모두 확인되는 경우 별도로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및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하면 됨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관련 Q&A

### Q1. 2013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나요?

A1.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인 만 4~6세까지 접종 완료해야 하는 4종[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의 접종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확인된 경우는 별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Q2.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학에 제약이 있나요?

A2. 아닙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취학시기는 감염병 발병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므로,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Q3. 아기수첩에는 접종내역이 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3. 접종시행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건소 또는 입학 시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이 폐업하였다면 폐업한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예방접종 수첩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대상 접종(4종)에 한해서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전산등록이 가능합니다.

### Q4.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접종기록의 전산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접종받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급(팩스, 이메일 가능)한 <예방접종 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Q5. 지연접종으로 만 4-6세에 접종하여야 하는 추가접종이 생략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DTaP 4차, 폴리오 3차, 일본뇌염 사백신 3차 접종이 만 4세 이후 실시된 경우에는 다음차수 접종이 생략되므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제외 사유가 적힌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Q6. 만 4~6세에 받아야 할 접종을 DTaP-IPV 콤보백신으로 접종한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6. 이전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만 4~6세에 DTaP-IPV(콤보백신)로 추가 접종을 받았다면 DTaP 5차,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하며, 예방접종도우미에서도 확인되는 경우 학교에서도 확인됩니다.

## 이·미용실 이용 전에 서비스 내용·가격 확인하세요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2012. 12. 11.) -

- ♣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하여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의미한다.

※ 가격게시 의무 위반 시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위반 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50~150만원) 부과

- ♣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옥외\*에도 게시하여야 하며, 옥외 게시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

\* 옥외란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이 해당된다.

※ 66㎡(20평)이상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6,000여개소(전체의 13%)

※ 서비스 품목 예시 : 이용(면도, 이발, 염색 등), 미용(컷트, 드라이, 염색 등)

- ♣ 그간 업소 내에 요금표의 게시 의무는 있었으나, 업소에 따라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빠진 요금이 게시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종지불요금과 옥외게시제도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앞으로 피부미용실은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위와 같은 설비는 피부미용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클렌징용품 등 화장품 미비치로 서비스 제공에 한계, 수건·미용기구의 소독 미시행 등 비위생적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피부미용실의 위생상태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준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신규진출업소는 2012.12.11부터, 기존에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던 업소는 2013년 6월 30일까지 베드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베드 등의 설비를 갖추지 않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된다.

## 각종 행사 및 활동

14기 상담원  
교육



14기 상담원  
교육



## 상담원 교육

| 일 자   | 교육내용                           | 대상                 |
|-------|--------------------------------|--------------------|
| 1. 2  | 201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사항            | 사회복지정책상담팀 등 46명    |
| 1. 8  | 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32명   |
| 1. 14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치매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장사 등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등 35명 |
| 1.17  | 아동복지시설, 디딤씨앗통장, 입양, 소년소녀가장지원 등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31명   |
| 1.18  |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30명   |
| 1.21  | 난임부부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등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32명   |
| 1.24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복지정책상담팀 32명      |
| 1.25  | 기초노령연금 자산조사, 대상자선정 등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27명   |
| 1.28  | 사회서비스 온라인 신청                   | 사회복지정책상담팀 등 45명    |
| 1.29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보건의료정책상담팀 24명      |
| 1.30  | 사회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보육료 온라인신청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등 57명 |
| 1.31  | 자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 사회복지정책상담팀 31명      |

## 우수 상담원

### BEST 상담원

이채빈 (보건의료정책상담팀)  
 강설아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이윤정 (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박은아 (위기대응상담팀)

### JUMP UP

노애영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조정은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양주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한미선 (위기대응상담팀)

### 129 기네스

상담건수 최다 : 윤은수(보건의료정책상담팀)  
 상담시간 최장 : 김성옥(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